

조계종 최초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 설립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 "우리 교학·수행 체계에서 잃었던 고리 채운 것"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인 불학승가대학원이 조계종 최초로 고창 선운사에 설립돼, 3월부터 학사행정을 시작한다.

불학승가대학원은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의 승가교육기관 개선 일환으로 설립이 준비돼 왔다. 교육원은 설립을 원하는 사찰이 없을 경우 직영시설을 세워 운영하겠다고 밝혔을 만큼 불학승가대학원이 승가교육 개선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컸다.

고창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사진)은 2월 7일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학승가대학원 설립 취지와 운영 방침 등을 설명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 스님은 사실상 주지 등을 역임하며 화엄학립을 이끌어 왔다. 스님은 화엄학립에서 초기·부파불교의 교과목을 운영해 학인스님들로부터 큰 반향과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재연 스님은 "불학승가대학원 설립은 우리 교학과 수행 체계 가운데 잃었던 고리를 찾아 채운 것과 같다"고 설립 의의를 밝혔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은 기존 4년제 승가대학(강원)을 대신해 설립됐다. 2년간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빨리어 삼장(경·율·론)을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는

다. 국내 초기불교 트리오라 불리는 재연(율장)·환성(경장)·각목(논장) 스님이 직접 교수한다. 또, 중앙승가대 미산 스님, 김포 용화사 지관 스님을 비롯한 국내 초기불교 연구자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실수는 불학승가대학원 학감 도정 스님이 담당한다.

재연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아는데 있어 초기불교 교학이 확고해야 대승불교·선불교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며 "동북아 불교는 대승불교를 중시하지만 이로 인해 불교사 전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불교를 바로 알려면 꽃과 열매라 할 수 있는 대승·선불교만 배울 것이 아니라, 뿌리인 초기불교 연구에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우리는 그간 중국인의 시각을 거친 한문불전으로만 공부하거나 서양인이 기독교의 눈으로 빨리어 원전 등을

해석한 불교를 접해왔다"면서 "불학승가대학원은 우리의 눈으로 불교를 보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연 스님은 "27일까지 입학원서를 접수 받아 3월 중 10여 학인스님을 선발할 예정이다. 설립 초기라 보다 많은 인원, 특히 비구니스님이 함께 수학하지 못하는 것은 차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안거가 끝난 산철기간에 2~3주 과정으로 <안반수의 경> 등을 선택해 오전 경전 공부, 오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불학승가대학원 정규 과정과 부설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면 차츰 정규 과정에 사부대중의 참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초기불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은 3월 4일 전형을 거쳐 17일 입학식을 봉행한다.

조종섭 기자

자정과 쇠신 결사는 시대적 소명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스님, "적절하고 요긴한 선언"

"먼저 스님들이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조계종은 수행정진과 선행에 소홀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아 화합과 수행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진제 스님은 "민족문화유산 속 불교문화에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심과 지원을 다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불자들 스스로의 자성도 촉구했다. 스님은 "우리 스스로 문화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자립적인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현행의 불리한 제반 제도와 관련 법안 등을 개선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스님(사진)은 2월 8일 대구 동화사 설립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정과 쇠신 결사'에 관한 입장 발표 및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진제 스님은 수행자로서 출가 본분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자성과 쇠신의 첫 걸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조계종의 자정과 쇠신은 "타성에 젖어 출가정신을 망각하고 퇴굴심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대오견성(大悟見性)하기 위해 신명(身命)을 돌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국민 계몽과 흥보, 교육을 통한 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조·태 "선암사 연내 타결 하자"

9일 첫 협상 시작, 대면식 가져

58년간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로 남아있는 순천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종단이 협상을 시작했다.

조계종과 태고종 협상대표들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순천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대면식을 가졌다.

조계종 측에서는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문 스님, 조계종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 총무원 재무부장 성월 스님, 총무원장 정책특보 정범 스님이 참석했으며, 태고종 측에서는 태고종 총무원 부위원장 화경 스님과 총무부장 상하 스님,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원로의원 지암 스님, 선암사 대중대표 정하 스님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이번엔 목사들의 조계사 땅밟기?

기독교인 4명 경찰 연행

목사를 포함한 개신교인들이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에 난입해 땅밟기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를 자처한 이태근 목사 등 개신교인 4명은 2월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정월 조상전도제가 한창이던 시간 조계사 대웅들 앞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조계사 종무원들과 20여 분 가



이태근 목사(사진 오른쪽) 등 4명은 이날 조계사에서 진행된 천도제 중 명언을 일삼아 경찰에 연행됐다.

랑 몸싸움을 벌이다 조계사 측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담화문 연속진단①-수행결사

알맹이 빠진 수행결사 열매 맺을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불교의 자성과 쇠신을 위한 5대 결사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가 근본적 고민 없는 피상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주 각각 결사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명해 본다.

근본 고민 없는 지엽적 접근...

수행 참 의미 되새겨야

조계종은 수행결사의 주요 내용으로 '분사별 결계 포살 시행', '승가복지 시행(수행기반 구축)',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교계에서는 종단이 수행결사의 방향이 잘못됐고, 근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분사별 결계 포살 시행'은 승려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의제로 보기 어렵다. '승가복지'는 승려들의 수행 정진을 위해 필요하나 종헌·종규에서 강화해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토론회 범위가 광범위하고 참수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 있음에도 '수행결사'에 포함된 것은 종단의 의제 빈곤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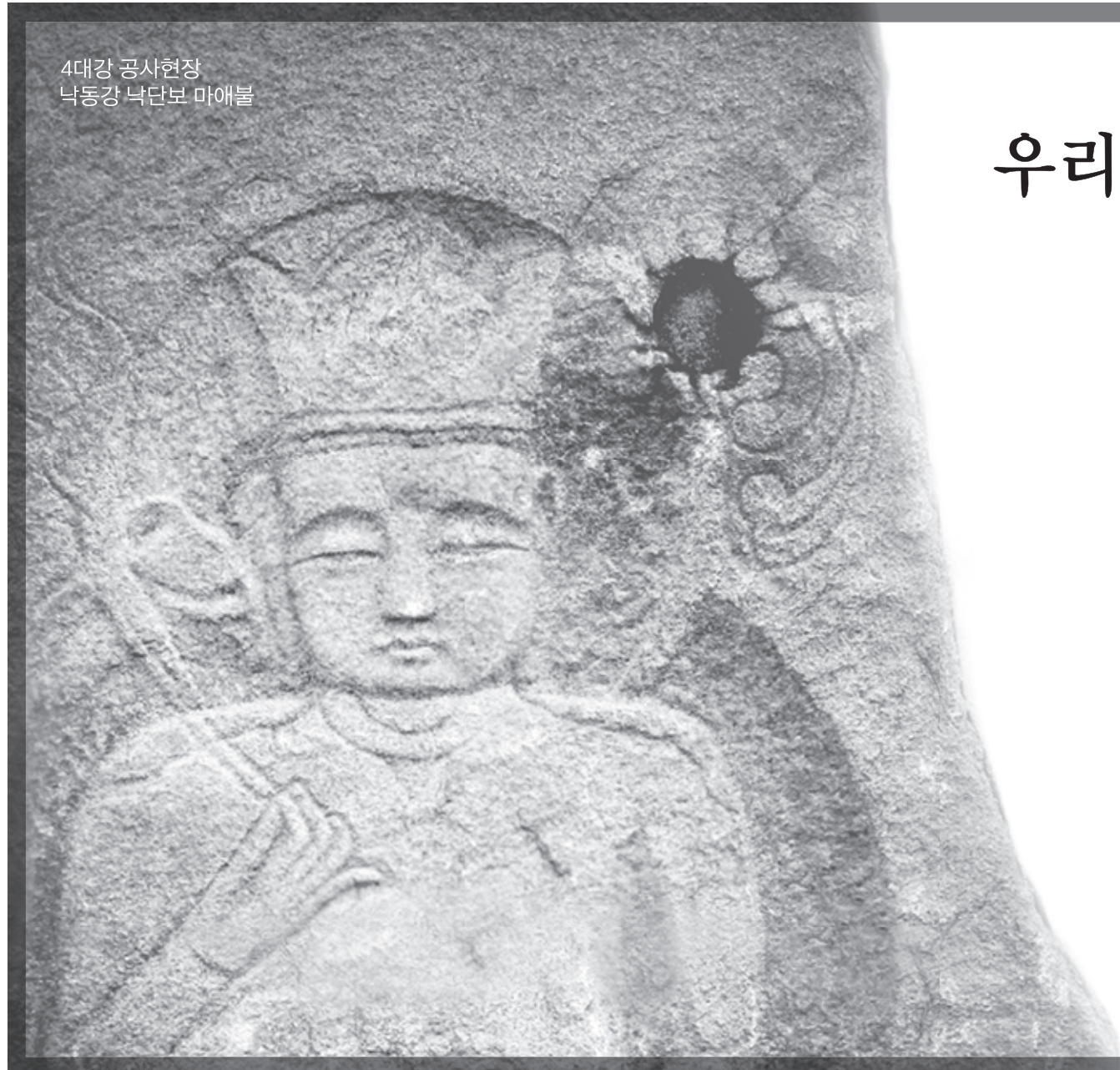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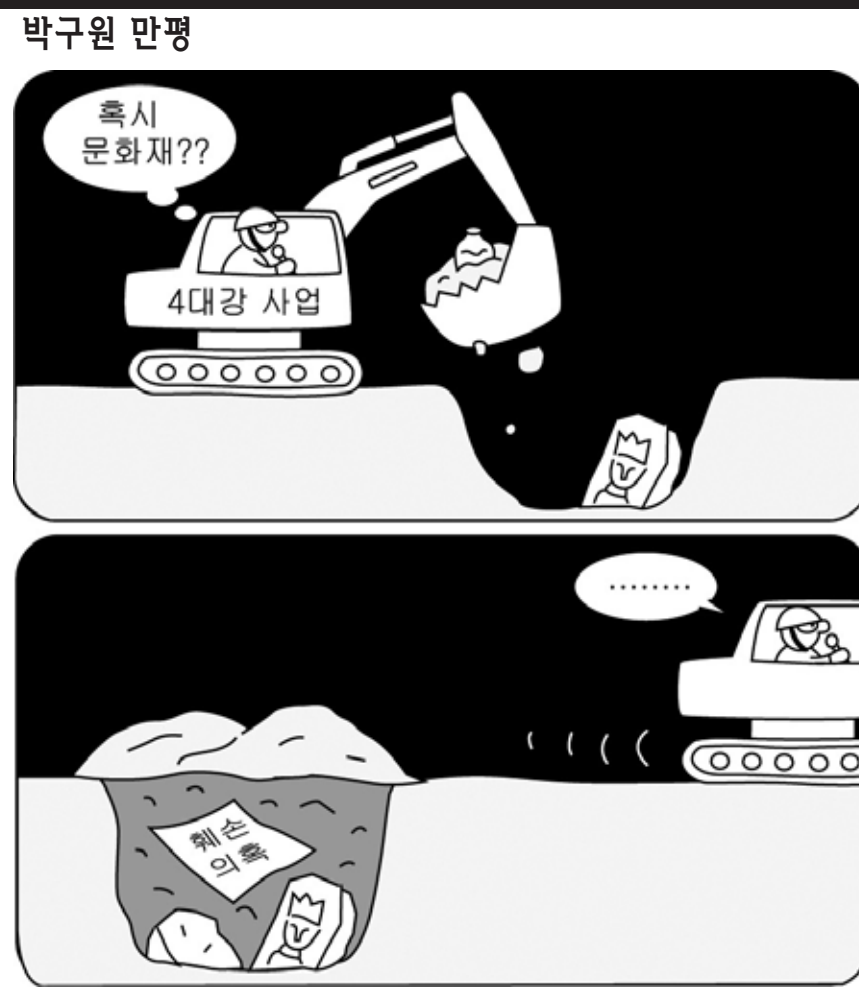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음 스님은 "진정한 수행결사를 위해서는 기복 신앙

등 비불교적인 요소부터 삭제해야 한다. 현대인에게 맞는 수행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원네트워크 운영위원도 현재 한국불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반성없이 제시된 수행결사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은 "수행결사라면 도덕성을 회복하고 대중을 위한 헌신의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앞으로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그렇지 못하면 환속시키는 엄격한 불교가 돼야 한다. 과오는 덮어버리고 도덕성 회복이라는 근본 문제를 외면한 수행결사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계포살은 수행의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성을 가진다. 이미 시행 중이지만 더욱 신장하기 위해 포함됐다. 승가복지는 수행과 포교에 있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토론회는 불교가 교리에 맞춰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다. 선방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수행결사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우리는 공존과 조화의 세상을 희망합니다.

낙단보 마애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의 얼과 민족혼에,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과 나눔의 가치에,
못 생명의 존엄성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젓줄과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오만과
독선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종교편향 정책과 오만과 독선으로 못 생명을 죽이는 死大江 사업을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